

“보스턴테러범 폭탄 두른채 경찰에 달려들어”

체첸계 형제 용의자 형 총맞아 사망, 동생은 검거

보스턴 마라톤대회 테러 사건의 형제 용의자 2명 가운데 도주했던 조하르 차르나예프(19)가 19일(현지시각) 경찰에 붙잡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보스턴 경찰 등 수사 당국은 이날 오후 8시45분께 매사추세츠주 워터타운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조하르와 수시간 동안 대치하다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하르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며 보스턴 지역에 있는 베스 이스라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조하르는 체포 직전 주택가의 보트 속에 숨어 있었다.

조하르의 형인 타메를란(26)은 이

날 동생과 함께 도주하다 새벽 1시15분께 몸에 폭탄을 두른채 경찰에 달려들어 폭탄에 맞아 사망했다.

◇007작전 방불케 한 겹거자작전=FBI는 사건 발생 사흘 이틀(20일)이 떨어진 18일(현지시간) 오후 용의자 2명의 신원을 일반에 공개했다. 조하르는 FBI가 공개수사로 전환한지 26시간 만에 붙잡혔다.

전날 밤 차를 타고 형과 함께 도주하다 형이 사망하자 차를 버린 채 달아난 조하르는 워터타운의 한 주택 숨어 있다가 경찰 헬리콥터의 적외선 탐지와 인근 주민의 제보로 위치가

드러났다. 이후 차르나예프 형제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MIT 학교 경찰관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뒤 인근에 있던 벤츠 차량을 뺏쳐 도주했다. 이후 형제는 벤츠 차량 주인을 캐임브리지의 한 주유소 앞에 내려준 뒤 도주하다 경찰이 접근하자 수제 폭탄을 경찰에 투척했다. 이 과정에서 형 타메를란이 총에 맞아 숨졌다.

◇차르나예프 형제는 누구인가=차르나예프 형제는 부모 및 여자 형제 2명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체첸계 이민자다. 동생 조하르는 2002년에, 형은 2003년에 각각 미국으로 온 것

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태어난 곳은 체첸공화국과 인접한 러시아의 북(北) 카카스 지역이다. 이번 사건으로 체첸공화국 문제를 놓고 인종·외교적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지 언론과 보스턴 인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평소 소셜미디어 활동을 열심히 해왔으며, 이들 형제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어서 범행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조하르는 미국 최고의 공립고 등학교 가운데 하나인 캐임브리지 소재 린지언드라인스쿨 출신이다. 조하르는 친구와 지인들로부터 매우 영리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

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형 타메를란은 복싱 선수로 워터타운 인근의 2년제 대학에 다니다 프로복싱 선수로 전향했다.

◇배후 또는 범행 동기는=이들 형제의 이번 범행에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 이들이 충동적으로 독자적인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사당국은 아직까지 이들 형제의 배후에 알 카에다 등과 같은 조직이 있었다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수사국은 여행·금융거래 기록은 물론 주변관계, 통화·통신 기록 등을 통해 차르나예프 형제와 가족의 배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MB, 테니스장 편법 이용 논란

“이용 시간대 인터넷 예약시스템 차단”

민주 박홍근 의원 지적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뇌의 이후,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 편법 이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한국체육산업개발 온라인 예약시스템 차단 기록에 따르면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6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1시 테니스장 코트 예약시스템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간은 이 전 대통령이 실제 테니스장을 이용한 시간대로, 한국체

육산업개발 측이 이 전 대통령의 편의를 위해 일반인들의 예약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5시간 동안 테니스장을 이용하면서 시간당 2만 5000원씩 12만5000원을 결제해야 하지만 3시간 요금에 해당하는 7만5000원만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실제 이용시간은 3시간이며 이 전 대통령의 의견 상 앞뒤로 1시간씩 비워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기자 tuim@kwangju.co.kr

합참차장 박신규·기무사령관 장경욱

군장성 인사

국방부는 19일 박신규 공군 중장을 합참차장에, 장경욱 소장을 국군기무사령관에 각각 임명하는 등 장성급 간부 21명에 대한 정기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4명이 중장으로, 13명이 소장으로 진급했으며, 중장 3명과 소장 1명은 보직만 바뀌었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 등 군수부부는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려해 전원 유임이 결정됐다.

합참차장에는 박신규 공군작전사령관(공사 27기·56세), 기무사령관

장(공사 28기·56세), 공군작전사령관에는 공군참모차장인 최차규 중장(공사 28기·57세), 기무사령관에는 장경욱 연합사 부참모장(육사 36기·56세)이 각각 임명됐다.

육사 37기 진급자 중 이재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인사사령관에, 박찬주 합참·신연합방위부총장과 김영식 합동군사대학 총장은 군단장에 각각 보직됐다. 학군 18기인 이병수 국방부 동원기획관도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에 보직됐다.

소장 진급자 13명 중 구홍모 외 등 11명은 사단장에 보직됐다. 소장 진급자 중 2차 진급인 육사 40기는 8명이다.

/연합뉴스



빌 게이츠 서울대 방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21일 오후 대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서울대 100주년 기념관으로 들어가며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그는 이날 창조경제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은 이미 텁클래스에 도달해 있다”면서 “애플 같은 기업을 따라하거나 모방하기보다 한국만의 고유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타임 선정 ‘세계 영향력 100인’

권오현·김정은도 포함

朴대통령 오늘 빌 게이츠 접견

박근혜 대통령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들어갔다.

18일(현지시간) 타임이 특별호를 통해 발표한 100인 가운데 정치인과 종교계 지도자 23명 명단에는 박 대

통령을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베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프란시스

코 교황이 포함됐다.

타임은 여성인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의 기고를 통해 박 대통령의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친나왓 총리는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리천장을 뚫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여성과, 국민에게 봉사할 각오가 된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권오현 부회장은 지혜를 갖춘 거인

이란 뜻의 ‘타이탄’ 20인 중 한 명으로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소개사를 맡은 존 스컬리 전 애플 CEO는 권

시대 모든 이를 능가하는 보기 드문 업적을 남겼다”고 칭송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정보기술(IT) 업계의 세계적 아이콘인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를 접견한다. 박 대통령은 빌 게이츠를 만나는 자리에서 새 정부 국정의 키워드인 ‘창조경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빌 게이츠와 MS

를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왔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등빌딩임대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급매매

두암타운시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5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10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가격절충가능)

상담 010-7570-7525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